

전남 7개 시·군 '상습침수 농경지' 배수 개선사업 추진

농림부 나주 동강·화순 도곡 등 확정 저지대 배수펌프·배수로 등 설치 태풍·집중호우 피해 미연 방지

나주와 화순, 함평, 장성, 보성, 무안, 완도지역 상습 침수 농경지에 대한 배수 개선 사업이 추진된다. 집중호우에 따른 곡창지대의 침수 피해가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11일 농림축산식품부와 전남 지자체들은 침수 피해에 취약한 저지대 농경지에 배수시설을 설치해 태풍·집중 호우에 의한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는 배수개선사업을 시행한다.

나주지역은 기본조사 지구로 선정된 '동강면 월송지구'와 신규 착수 지구로 확정된 '산포면 내기지구'를 대상으로 추진된다.

동강면 월송지구는 오는 2023년부터 2026년까지 4년 간 사업비 122억원을 투입해 수해면적 160ha에 배수펌프장 2개소, 배수로 6.5km를 각각 설치한다. 총사업비 50억원을 투입하는 산포면 내기지구는 오는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수해면적 54ha

에 배수문 2개소와 배수로 1.9km를 구축한다. 화순지역은 도곡면 덕곡지구가 기본조사 대상지로 선정되면서 국비 70억원을 확보했다.

도곡면 덕곡리와 신성리 주민들은 매년 반복적으로 침수 피해를 겪어왔으며, 화순군은 주민들의 숙원 해결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를 수차례 방문해 배수개선사업을 건의했다.

함평은 학교지구와 석창지구의 배수개선사업이 확정돼 국비 170억원을 확보했다.

학교지구는 기본조사지구로 선정돼 150억원을, 석창지구는 계속사업으로 20억원이 증액됐다.

학교지구는 월산리·사거리·월호리 151ha 농경지가 함평천과 영산강 수위 상승 시 배수로 단면 부족으로 매년 침수피해를 겪어왔다. 또 석창지구는 월천리·산남리·석창리 265.4ha 농경지가 해수면 상승과 배수로 단면 부족으로 침수 피해가 잦다.

장성군은 국비 60억원을 확보해 복일면 일대 농경지에 대한 대대적인 배수개선 사업을 추진한다.

장성 북일지구는 지난 1971년 경지정리 이후 대규모 개선사업을 진행한 적이 없어 배수시설의 노후화가 심각한 실정이다. 장성군은 이곳에 60억원을 투입해 배수펌프장을 설치하고 배수로를 정비

할 계획이다. 사업이 완료되면 총 99ha 규모의 농지와 시설물이 상습 침수 피해에서 벗어나게 된다.

보성은 미력·특량면 간척지 일원이 배수 개선사업 신규지구로 확정됐다. 미력 도개지구와 특량 안심지구로 사업비 193억원을 확보, 오는 2024년까지 사업을 마칠 계획이다.

미력 도개지구(75ha)는 보성강과 접한 저지대로 매년 집중호우 시 침수피해가 상습적으로 발생하는 곳이다. 특량 안심지구(192ha)도 예당 간척 농지 하단부로 침수피해가 잦다.

무안은 기본조사 대상지구로 운남면 양곡지구가 선정돼 사업비 198억원을 확보했다.

사업 대상지는 운남면 연리 일원 26·33ha이며, 무안군은 배수장 4개소, 배수로 2개소, 배수로 신설 및 확장 6.2km 등 정비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완도지역은 노화읍 충도지구에서 사업이 진행된다.

완도군은 매년 상습 침수되는 노화읍 충도지구 일원이 농림축산식품부 2021년 배수 개선 신규 착수지구로 선정돼 국비 96억원을 확보했다.

완도군은 충도지구 배수개선사업을 추진하고자 지난 2017년부터 농림축산식품부에 건의해 2019



농림축산식품부와 전남지역 지자체들은 침수 피해에 취약한 저지대 농경지에 배수시설을 설치, 태풍·집중 호우에 의한 피해를 막는 배수개선 사업을 추진한다. <나주시 제공>

년 기본조사 대상지로 선정됐다. 올해 실시계획을 거쳐 배수로 6개소 신설·정비, 배수로 1.3km 확장 등을 추진하며, 준공은 2025년이다. 완도군은 지난 2004년부터 245억원을 투입해 화

흥지구, 신지 월부지구, 노화 구석지구 배수개선사업을 완료했으며 금당 삼산 배수개선사업 선정으로 현재 총 2곳에서 사업이 진행 중이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순천경실련, 자원순환센터 정보공개 청구 소송

입지선정위 회의록·업무계획 등 광주지법에 공개청구 소송 제기

순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최근 순천시를 상대로 자원순환센터와 신규 폐기물처리시설 관련 내용을 공개하라며 광주지법에 정보공개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11일 밝혔다.

순천경실련은 지난해 12월 화재로 가동 중단된 자원순환센터의 운영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순천시에 운영일지와 협약서 등의 정보 공개를 요구했다. 경실련은 또 순천시가 추진 중인 클린업환경센

터와 관련해 입지선정위원회 회의록과 업무 계획 등도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순천시는 경실련이 정보공개를 요구한 9개 항목 가운데 클린업환경센터 업무 계획 등 3건을 공개하고 나머지 6건은 영업상 비밀을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다.

순천경실련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자원순환센터는 가동 이후 크고 작은 화재가 여러 차례 발생하는 등 순천시의 관리·감독이 부실했음을 여지없이 드러냈다"며 "시민들의 세금으로 지어지고 운영되는 사업인 만큼 사업의 현황이 시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함이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순천시 관계자는 "자원순환센터 측에서 영업상 비밀을 이유로 정보공개 비동의 요청을 해와 공개하지 않았다"며 "자원순환센터의 고형연료 사용 실적이나 클린업환경센터 관련 내용은 공개했다"고 밝혔다.

순천에서는 하루 190t의 폐기물이 발생하는데 왕조동 쓰레기 매립장도 사용 연한이 다가오면서 추가로 처리시설이 시급한 실정이다.

순천시는 2025년까지 5만㎡ 규모의 매립시설과 소각시설, 재활용선별시설 등을 갖춘 클린업환경센터를 건립할 계획이다.

<순천=김은중 기자 ejkim@kwangju.co.kr>

해남 땅끝항 여객선터미널 준공

완도 노화·횡간 등 관광객 27만명 이용

해남군 땅끝항 여객선터미널이 신축됐다. 땅끝항은 해남군의 유일한 연안항으로 해남군과 이웃한 완도 노화도, 횡간도, 흑일도 등 완도군 지역주민과 해남을 찾는 관광객 등 연간 27만여명이 이용하고 있다.

땅끝항 여객선터미널 신축공사는 국가항만기본계획에 따라 국비 31억 7400만원을 투입, 2019년 12월 착공해 1년 4개월 만에 공사를 마무리했다. 지상 1층 연면적 499.6㎡ 규모의 시설로 매표소, 대합실, 사무실 등의 다양한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다.

땅끝 일출의 이미지를 형상화했다. 건물 옥상에 설치된 반원 모양의 미디어클러스는 62개의 진공 유리판으로 구성돼 LED를 통해 다양한 콘텐츠 구현과 홍보영상 연출이 가능해 야간에도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는 땅끝의 대표적인 명소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동안 땅끝항에는 여객선터미널이 없어 조립식 건물에서 매표하는 등 많은 불편을 겪어 왔다. 여객선터미널이 준공됨에 따라 매표 및 탑승대기, 휴식 등 공간이 마련돼 이용객들이 더 쾌적하고 편리하게 뱃길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해남=박희석 기자 dia@kwangju.co.kr>

곡성군, 원예산업 종합평가 2년 연속 최고 A등급

30억 무이자 자금 확보

곡성군은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2021년 원예산업종합계획 이행실적 연차평가에서 2년 연속 최고 A등급을 받았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곡성군은 통합마케팅 조직 산지유통 활성화자금 30억원(무이자 용자) 지원과 함께 산지 관련 사업 우선 선정의 기회를 얻게 됐다.

원예산업종합계획은 원예농산물 생산능가를 위해 조직화·규모화된 산지 통합마케팅 조직을 육성하는 내용을 담은 생산유통 종합육성 계획이다.

원예산업종합계획은 2017년에 수립됐으며 계획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농림부에서는 정기적으로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 평가는 전국 129개 지자체 등 141개소가 대상으로 진행됐다. 평가지표는 3개 분야(생산, 유통, 이행노력) 10개 핵심항목으로 구성됐으며, 각 지표는 총 5단계로(A-E) 평가가 이뤄졌다.

곡성군은 원예농산물 통합마케팅 활성화 실적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농림축산식품부의 '2021 원예산업 종합계획 평가'에서 곡성군이 2년 연속 최고인 A등급을 받았다.

농협과의 협력사업으로 총사업비 2억원을 투입해 원예농산물 통합마케팅에 참여한 농가에게 유통물류비를 지원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이같은 지원을 통해 통합마케팅 조직에는 농협 경제지주 곡성군연합사업단을 주축으로 지역 내 4개 조합이 참여하고 있다. 그 결과 지난해에는 멜론, 딸기, 토란 등 원예농산물에 대해 170억원의 취급실적을 달성했다.

<곡성=박종태 기자 pjt@kwangju.co.kr>

여수시, 삼동지구 분해성 고분자 소재 상용화 기반 구축

여수시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스마트 특성화 기반 구축사업에 '분해성 고분자 소재 상용화 기반구축 사업'이 선정됐다고 11일 밝혔다.

사업 선정에 따라 여수시는 국비 60억원 등 166억원을 투입해 오는 2023년까지 삼동지구에 자연 분해되는 비닐과 플라스틱 등 친환경 고분자 소재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사무동과 실증화동을 구축할 계획이다.

전남테크노파크가 총괄해 농업에서 발생하는 폐플라스틱이나 미세 플라스틱 등 다양한 환경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생분해 필름의 상용화를 지원하게 된다. 센터가 구축되면 폐플라스틱으로 인한 환경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내 고분자 산업의 신규 시장 창출과 석유화학기반 기업들의 고부가가치 신산업으로 전환이 기대된다.

<여수=김창화 기자 chkim@kwangju.co.kr>

ESS시공전문기업

태양광발전소 부지·시설 고가매입

**당사 및 당사관련사업소에서는
소형(100kW~1,000kW) 중형(1,000kW~3,000kW) 대형(3,000kW이상)의
태양광발전시설을 대량 매입중입니다**

● **매매대상** ●

- 개발행위 허가전 발전소
- 개발행위 허가중 발전소
- 현재 공사중인 발전소
- 현재 운영중인 발전소
- 1차 FIT 종료중 발전소
- 곤충사육장 + 태양광
- 버섯재배사 + 태양광

선로 걱정 아시고 전화주세요!

당사에서는 **개발행위**(건축물 위 공작물 축조신고)를 **무료**로 해드립니다. (*건축물 구조진단 비용은 유료)

환경과에너지종합기술(주)

**상
담
전
화**

전국대표 1544-1926
010-7614-1055
010-2845-4754